

원산지관리사 시험안내

국제원산지정보원 기획총괄팀



원산지관리사는 정부가 인정한 FTA·원산지관리 분야에서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으로 2010년부터 시행되어 13회(14.11.15)까지 총 2,17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원산지관리사 자격은 2012년 말에 공인민간자격으로 승인되었고 정부와 지자체, 기업에서 인사 상 우대가 가능해졌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창출지원사업을 통해 국가공인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 기업에는 전문인력채용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에도 총 3회의 원산지 관리사 시험이 있을 예정이다. 아래에서는 2015년도 원산지관리사 시험일정과 시험과목, 응시방법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



01 시험일정

2015년 원산지관리사 정기시험은 총 3회가 시행될 예정이며, 지난 3월 28일 제14회 원산지 관리사 시험이 있었다. 다음 시험은 8월 22일이며, 7월 27일에서 8월 5일 사이 원서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회 차	시행일자	시험공고일	원서접수기간	합격발표
14회	3. 28(토)	2. 23(월)	3. 2(월) ~ 3. 11(수)	4. 27(월)
15회	8. 22(토)	7. 20(월)	7. 27(월) ~ 8. 5(수)	9. 21(월)
16회	11. 21(토)	10. 19(월)	10. 26(월) ~ 11. 4(수)	12. 21(월)

02 세부사항

원산지관리사 시험의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지난 2014년 4월까지 치러진 시험에서는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응시가 가능했지만, 제12회부터 의무사전교육은 없어졌다. 원산지관리사 교육이 필요하다면, FTA원산지 아카데미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수험생은 이를 통해 활용이 가능하겠다.

또한, 시험과목은 FTA 협정 및 법령, 품목분류 실무,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 통관 실무 등 총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정과목별 세부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시험은 4지선다 객관식이며, 2시간동안 시험이 진행된다. 전체 문항수는 100문제이며, 과목당 100점만점 기준으로 과목 평균 60점 이상, 매 과목당 4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 가능하다. 시험지원은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 **시행장소** : 시험 공고 시 안내
- **응시자격** : 제한없음
- **검정방법**

검정방법	시행형태			합격기준
	구분	과목	문제수	
필기 (4지선다 객관식)	14회	• FTA협정및법령	25	총 50
		• 품목분류실무	25	
	16회	• 원산지결정기준	25	총 50
		• 수출입통관실무	25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검정과목**

과 목	출제분야
FTA협정 및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 이해 FTA 관세특례법 원산지증명 제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원산지 조사 원산지 사전심사 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
품목분류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HS 품목분류제도 관세율표 통칙 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
원산지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개요 FTA특혜관세적용조건 일반기준 품목별기준 등
수출입통관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의 개요 관세법 일반 수출입통관 보세구역관리 보세화물관리 등

※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

03
기타사항

원산지 관리사를 취득하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업체의 원산지관리 전담자로서 취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격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에서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원산지관리사 채용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에 해당 되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원산지관리사 자격 취득자를 신규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연간 1,080만원까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알림마당 게시판의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공고 및 세부 시행지침을 참고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전문인력 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
-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 자격을 포함하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사등 전문인력을 지원대상으로 함
- 지원대상 업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제외한 근로자수 500명 이하 제조업 및 근로자수 규모에 따른 서비스업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원산지관리사 취업 및 업무 도움 사례

국제원산지정보원 기획총괄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 협정에 따라 원산지를 증명하면 특혜관세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FTA 원산지관리사이다. 2010년 6월 최초 시험이 시작된 이후로 지난 3월 28일 14번째 원산지 관리사 시험이 있었다. 민간등록이던 원산지관리사 자격은 2013년 국가공인으로 지정되어 자격증 취득자들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체 등에서 채용이나 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에 합격하면, 무역회사의 원산지 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춘 것으로 기업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특히,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정요건상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내부원산지 관리전담자로서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므로 일반회사의 기획팀, 구매팀, 영업 지원팀 또는 유관기관의 취업에 있어 매우 큰 역할을 수 있는 자격증이다.

시험 주관사인 국제원산지정보원 기획총괄팀에서는 원산지관리사 준비생 또는 취득예정자들에게 생생한 취업(업무)도움 사례를 제공하고 자격증 홍보를 목적으로 원산지관리사 활용 우수사례를 공모하였다. 2010년에서 2014년 원산지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응모 내용 중 우수사례 2편을 선정하여, 수상자의 동의하에 관련내용을 실었다.

원산지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취업!

김수정
FTA 전략연구센터 기획개발팀



“
지금하고 있는 업무들은
원산지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없었더라면
1년이 걸려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성공과
전문지식 취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4년도 12회 원산지관리사를 취득한 김수정입니다. 원산지관리사를 취득하자마자 원산지정보원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한 취업기회(원산지관리사 우대채용)에서 바로 FTA전략연구센터라는 업체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곳에서 원스탑관세법인의 FTA팀과 함께 실무에 바로 투입되어 전문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업체가 원산지에 대해 잘 모를시 이론적 기초제공, 기업 맞춤형 FTA 컨설팅(원산지 관리체제 구축, 운영, 사후검증 대비, FTA업무대행 서비스), 기업 실무자 대상 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특히,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협력사 원산지확인서 발급 및 수취와 원산지관리 프로그램 (FTA-PASS)과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여 업체의 FTA활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게된 계기는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한 “FTA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 제 4기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최종목적이 원산지관리사 취득이었고, 노력 끝에 저는 12회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취직이 되지 않아 우연찮게 무역학과라는 전공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FTA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를 신청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교육부터 견학 그리고 면접이라는 기회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 원산지관리사를 획득하여 FTA전략연구센터에 들어온 것은 저에게 원산지관리사라는 전문직을 발전시켜 평생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또한, 인천상공회의소 동기들 중 누구보다도 원산지관리사를 잘 활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원산지관리사를 준비할 당시에는 나라별 FTA협정, 기관/자율 발급, 협정별 서식, 원산지검증 등 모든 것을 이론적으로만 접했지만, 업무의 특성상 원산지관리에 대한 것들을 실무적으로 접하게 되니 이론적인 부분이 밑바탕으로 깔려 실무적으로 실행하는데 있어 이해하는데도 편하고 좀 더 빨리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입사하자마자 업체에서 한-EU 원산지검증 및 한-미 원산지검증 의뢰가 들어와 원산지관리사로서 참여하여 서류 작성 및 업체 방문을 통해

실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작성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업무들은 원산지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없었더라면 1년이 걸려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원산지관리사를 공부하고 취득함으로써 취직의 기회 뿐 아니라 업무도 빠르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거나 취득예정인 분들 역시 저처럼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성공과 전문지식 취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출계약 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원산지 관리사

김태완
대호정기 영업부 과장



저는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농공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방산부품 관련업체인 대호정기(주)에서 국내 고객사 업무와 해외 거래선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계기는 태국시장 진출을 기획하면서 해외시장으로의 수출에 있어서 원산지증명 프로세스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2013년 4월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주관하고 양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 이수 후, 같은 해 5월에 실시된 제8회 원산지관리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원산지관리사 취득으로 인해 FTA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수출업무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어로부터의 직접적인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뿐만 아니라, 거래처나 고객사로부터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요청에도 주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처나 이웃 회사의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 발급 관련 업무도 지도하게 되어 대외적인 신뢰도도 많이 쌓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격증 획득으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부분은 수출계약 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었던 일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는 방산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보니 일반 민수 제조업에 비해서는 수출처의 발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회사의 총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 정도 됩니다.



원산지관리사 취득으로 인해 FTA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수출업무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격증 획득으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부분은 수출계약 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던 일입니다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이전에도 수출은 하고 있었지만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해 오는 해외업체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도에 태국 KOTRA를 통하여 현지 업체를 발굴하게 되었고, 제품 수출에 시간이 걸리기는 하였지만, 2013년이 시작되면서 고대하던 수출계약이 성사되려는 막바지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성사의 최종단계에서 태국의 바이어가 상업송장 발행 시 Under Value를 요구해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방산관련 제품 제조업의 특성상 신뢰와 신용은 회사 운영에 있어 생명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바이어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들어주게 되면 자칫 회사가 좋지 않은 일로 인하여 오명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실로 난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결국 바이어와의 수출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회사 내부적인 결정까지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업무담당자인 저는 태국 바이어와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제품의 태국 수입관세가 약 30%에 달하다보니 태국 바이어 입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 수입 관세를 줄이려는 의도로 Under Value를 요구해 왔었던 것입니다.

수출계약 협상이 진행되는 당시에도 저희는 태국 바이어가 한·아세안 FTA를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이에 대해서는 굳이 확인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특혜관세율을 확인한 후 한·아세안 FTA 특혜원산지증명서와 그에 따른 관세 혜택을 설명해 주게 되었는데, 태국 바이어는 그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협상은 급진전되기 시작하였으며, 바이어 자신도 관련사항을 확인한 결과 더 이상의 요구사항 없이 바로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2월에 25만 달러의 계약을 성사시켜 그해 전량 수출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후속 물량에 대한 상담과 시제품 수출이 이어졌고, 2015년 올해에는 약 60만 달러 이상의 추가 수출계약을 위한 상담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